

《史記》三家注의 교감 연구*

서 원 남
(한양대학교)

1. 序言

중국 최초의 기전체 통사인《史記》는 뛰어난 문학작품인 동시에 역대로 문장의 표준으로 평가되었다. 언어학사의 측면에서 보면 사마천이 생활한 西漢은 위로는 先秦, 아래로는 魏秦南北朝를 연결하는 과도적인 시기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史記》의 언어문화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史記》는 역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東漢에서 隋唐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史記》주석본들이 탄생하였다. 司馬貞의《索隱後序》,《唐書·藝文志》와 鄭樵의《通志》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唐 이전의《史記》注釋本으로 後漢 延篤의《史記音義》1卷, 무명씨의《史記音隱》5卷, 吳張營의《史記正傳》9卷, 南朝 宋 徐廣의《史記音義》12卷, 梁 鄒誕生의《史記音》3卷, 隋 柳顧言의《史記音解》30卷, 唐 許子儒의《史記注》130卷, 劉伯庄의《史記音義》20卷과《史記地名》20卷, 王元感의《史記注》130卷, 李鎭의《史記注》130卷 및《史記義林》20卷, 陳伯宣의《史記注》130卷, 徐堅의《史記注》130卷, 裴安時的《史記纂訓》20卷 등이 있다. 이상의 주석 작품은 현재 모두 유실 되었고, 오직 南朝 宋 裴駰의《史記集解》, 唐 司馬貞의《史記索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3년도)

隱)과 張守節의《史記正義》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칭《史記》三家注이다.《三家注》는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史記》주석서로 《史記》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게다가《三家注》에 보존되어 있는 文獻은 그 명칭과 관련 자료들이 매우 풍부하여 문헌학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程金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삼가주에 인용된 서적은 그 합이 1,000여종에 달하며, 설령 중복된 것은 제외한다고 해도 500여종에 달하고도 남는다.《수서·경적지》《당서·예문지》에 수록되지 않은 서적들은 절대 다수가 이미 유실되었다. 따라서 이 500여종의 서적은 중국 학술발전의 부침을 검증하고, 유실된 서적의 시대를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三家注所引之書, 合之可千有餘種, 若除其重複, 尙可得五百種上下. 有隋唐書志所不著錄者, 而絕大部分已經亡逸. 但此五六百種之書, 它可以驗中國學術之消長, 可以考書籍亡逸之時代, 在目錄學上是有重要性的)”

이외에도 三家注에는 서적의 명칭 외에도《史記》에 보존되어 있는 많은 서적의 逸文과 異文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今本《三家注》는 아주 특수한 유형의 集注로, 원래는《史記》의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각각 단행본으로 통행되었다. 따라서 卷數도《史記》의 원문과 달랐다. 송대에 와서《三家注》를《史記》원문의 각 구절 아래에 삽입하여 판각함으로써 합본이 되었다.《三家注》는 人名이나 地名에 대한 考證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이 주석의 핵심이며,《史記》주석의 목적이나 주석의 방법과 체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각 완성 시기가 달라 주석의 강조점이나 완성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정리의 측면에서《三家注》의 校勘 작업에 있어 그 내용 및 방법에서 대하여 장단점과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三家注》校勘內容

《史記》의 편찬과 함께 유전 초기에는 여러 판본들이 있었으며, 각 판본사

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差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史記集解序》에서는 “考較此書史記, 文句不同, 有多有少, 莫辨其實”이라고 하였고, 《史記音義》에서도 “古, 數本, 多, 一本”등의 술어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史記正義》에서도 다양한 술어를 이용하여 《史記》원문에 대하여 교감을 하였다.

1. 異文에 대한 校勘

①<五帝本紀>: “命羲仲, 居郁夷, 曰暘谷.” → 《正義》: 郁音隅. 陽或作暘(郁의 자음은 隅로 발음한다. 陽은 他本에서는 暘자로 쓰기도 한다)

②<周本紀>: “明年, 敗耆國.” → 《正義》: 則黎國也. 鄒誕生云本或作黎(黎國을 가리킨다. 鄒誕生은 타본에서는 黎자로도 쓰고 있다고 하였다).

③<樂書>: “故其治民勞者, 其舞行綴遠” → 《正義》: 行音胡郎反. 綴音子衛反. 本或作綴, 音同(行의 자음은 胡와 郎의 반절음이다. 綴의 자음은 子와 衛의 반절음이다. 타본에서는 綴자로 쓰고 있는데, 발음이 같다).

④<廉頗藺相如>: “厚遇戰士” → 《正義》: 戰士, 或本作單于者非也(전사의 경우, 타본에서는 선우라고도 쓰고 있는데, 옳지 않다).

위에 열거된 예문을 통해서 《正義》에서는 “本作”, “或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異文의 차이에 대해 교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正義》에서는 “一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판본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①<殷本紀>: “崇侯虎知之, 以告紂, 紂囚西伯姜里.” → 《正義》: 牖, 一作姜, 音酉(牖자의 경우, 他本에서는 姜자로 쓰고 있고, 자음은 酉로 발음한다)

②<孝武本紀>: “黃帝終始傳曰. 漢興百有餘年, 有人不短不長, 白燕之鄉.” 《正義》: 一作白雉. 案霍光, 平陽人. 平陽今晉州霍邑, 本秦時霍伯國, 漢爲彘縣, 後漢改彘曰永安, 隋又改爲霍邑. 遍檢記傳, 無白燕之名, 疑白雉是鄉之名.“타본에서는 白雉라고 쓰고 있다. 내 생각에 霍光은 평양 지역 사람이다. 평양은 지금의 진주 霍邑에 해당하며, 원래 진나라 때에는 霍伯國 이었고, 漢대에는 彘縣이었으며, 後漢에 와서 彘縣을 永安으로 바꾸어 불렀고, 隋대에 와서 霍邑으로 고쳐 불렀다. 여러 사전과 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白燕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으므로, 白雉라고 한 것은 고을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③<陳杞世家>:“哀公屬之其弟司徒招”→《正義》:招, 一作苕, 同韶(招자는 他本에서는 ‘苕’로 쓰고 있고, 자음은韶와 같다).

④<天官書>:“柳爲鳥注,主木草.”→《正義》:喙, 丁救反, 一作注(喙의 자음은 丁과 救의 반절음이다. 他本에서는 注자로 쓰고 있다).

⑤<白起王傳列傳>:“夫秦王惧”→《正義》:徐廣曰 一作粗(徐廣은 他本에서는 粗자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正義》에서는 “當作”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원문 가운데 잘못된 글자를 교감하였다.

①<齊太公世家>:“諸侯會桓公于于甄”→《正義》:甄, 當作陘. 括地志云濮州陘城縣是也(甄은마땅히 陘자로 써야 한다. 《括地志》에서는 濮州의 陘城縣이 바로 그곳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②<楚世家>:“吞三翻六翼.”→《正義》:翻誤也, 當作鬲瓦, 音曆(翻자는 잘못되었으며, 마땅히 鬲瓦자로 써야 한다. 자음은 曆이다).

③<黥布列傳>:“長沙哀王”→《正義》:哀, 字誤, 當作成也(哀자는 잘못되었으며, 마땅히 成자로 써야 한다).

④<秦本紀>:“古之人謀黃發番番”→《正義》:音婆. 字當作幡(자음은 婆이며, 마땅히 幡자로 써야 한다).

⑤<趙世家>:“十年, 燕攻昌壯”→《正義》:壯字誤, 當作城(壯은 잘못되었으며, 마땅히 城으로 써야한다).

⑥<魏世家>:“十六年, 秦拔我浦反, 陽晋, 封陵”→《正義》:陽晋當作晋陽也, 史文誤(陽晋은 마땅히 晋陽으로 써야한다. 사문이 잘못되었다).

이밖에도 ‘舊作’, ‘一本’, ‘又作’등의 술어를 사용하여 《史記》본문의古今字, 假借字등에 대한 교감작업을 진행하였다.

①<鄭世家>:“京人畔段, 段出走鄆”→《正義》:鄆音鳥古反. 今新鄭縣南鄆

頭有寸, 多萬家. **舊作鄢**, 音偃(鄢의 자음은 烏와 古의 반절음이다. 지금의 신정현 남교두에 고을이 있고, 만 여 가구에 이른다. 이전에는 鄢자로 썼으며, 偃으로 발음하였다).

①<呂太后本紀>:“猶豫未決”→《正義》:與, 音預. **又作豫**(與자는 자음이 預이고, 豫자로 쓰기도 한다).

《史記集解》의 異文에 대한 교감 작업은 주로 徐廣의 《史記音義》의 교감 성과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六朝時代 古今字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후대에 《史記》의 異文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①<五帝本紀>:“帝嚳灑執中而徧天下, 日月所照, 風雨所至, 莫不從服”→《集解》: 徐廣曰古既字作水旁, 徧字**一作尹**(서광은 이전에는 既자를 水편방이 있는 글자로 사용하였고, 徧자는 또한 尹자를 쓰기도 하였다).

②<五帝本紀>:“分命羲仲, 居郁夷, 曰暘谷.”→《集解》:《尚書》作嵎夷. 孔安國曰東表之地稱嵎夷, 日出於暘谷, 羲仲治東方之官(《尚書》에서는 嵎夷로 썼다. 공안국은 동쪽 지역에 嵎夷라고 하는 곳이 있고, 暘谷에서 태양이 떠오르며, 羲仲이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를 지냈다고 하였다).

③<禮書>:“故至備, 情文俱盡.”→《集解》:徐廣曰古情字或假借作請, 諸子中多有此比(徐廣은 이전에는 情자를 가차하여 請자로도 썼다고 하였는데, 諸子書에 이러한 비유들이 많이 있다).

④<樂書>:“詘信俯仰綴兆舒疾, 樂之文也.”→《集解》:徐廣曰今《禮》作綴(서광은 현존하는 《禮書》에는 綴자를 썼다고 했다).

⑤<封禪書>:“古者先振兵澤旅, 然後封禪”→《集解》:徐廣曰古釋字作澤(서광은 이전에는 釋자를 澤자로 썼다고 했다).

⑥<田叔列傳>:“武帝聞之以爲任安爲詳邪, 不傳事, 何也?”→《集解》:徐廣曰佯或作詳也(서광은 佯은 詳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예문 ①의 경우 徐廣의 인용에 근거하여 이전의 판본에서는 ‘灑’로, 《集解》本에서는 ‘既’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六朝時代에는 古今

본이 모두 통행되고 있었고, 현존하는 《史記》가 ‘灑’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古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의 경우 《尙書》와 《僞孔安國傳》에 근거하여 교감을 하였는데 모두 ‘嶠夷’로 쓰고 있다. 일종의 他校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嶠’와 ‘郁’은 동음 통가자이다. ③의 경우 서광이 가차자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史記》의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④에서는 서광의 말을 인용하여 《禮記》에서 ‘綴’로 쓰고 있는 것을 강조하여, 육조시기 《史記》통행본의 오류에 대해 교감하였다. ⑤의 경우 서광의 ‘釋’자는 《漢書》에 근거한 것이며, 현존 《史記》本에서 ‘澤’으로 된 것은 古本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⑥의 경우 徐廣의 본 판본에서는 ‘佯’으로 타본에는 ‘詳’으로 되어 있는데 《索隱》本에는 ‘詳’으로 쓰고 있다. 司馬貞은 ‘詳’의 의미를 ‘~한 체하다’로 풀이하였는데 ‘詳’이 ‘佯’의 가차자임을 보여주는 용례라고 할 수 있다.

《史記索隱》의 異文은 주로 동일한 문헌의 기록이 다른 판본에 사용된 문자와의 차이 또는 원문과 인용문의 문자차이를 교감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異文의 발생 원인이 同源字, 同義詞, 同音假借, 異體字 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①<五帝本紀>:“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索隱》:或作涿鹿, 古今字異耳. 案《地理志》上谷有涿鹿縣, 然則服虔云在涿郡者誤也(他本에서는 涿鹿으로 쓰고 있는데, 古今간 사용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地理志》에서 上谷에 涿鹿縣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 服虔이 涿郡에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②<史記集解序>:“於是軒轅乃慣用干戈, 呂以征不亨, 諸侯咸來賓從.”—《索隱》:謂用干戈以征諸侯之不朝亨者. 本或作亨, 亨訓直, 以征諸侯之不直者(원원은 창과 방패 등을 사용하여 (신농씨에게)조공을 바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했다고 하였다).

①의 경우 ‘或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他本과의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문자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異文 발생의 원인이 古今字의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의 경우 ‘不亨’을 ‘조공을 바치지 않는’ 행위로 풀이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他本과의 차이, ‘亨’과 ‘亨’의 사용에 대하여 훈고의 형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2. 衍文에 대한 교감

‘衍文’은 문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후인들의 필사와 판각 과정의 부주의로 인하여 원문에 첨부 되거나 중복 수록된 문자를 말한다. 따라서 《三家注》에서도 이러한 衍文에 대한 교감을 지적하고 있다.

《集解》

①<殷本紀>:“湯歸至於泰卷陶, 中壘作誥.”→《集解》:徐廣曰一無此陶字. 孔安國曰地名.(서광은 타본에서는 陶자가 없다고 하였다. 孔安國은 地名이라고 하였다).

②<秦始皇本紀>:“河魚大上, 輕車重馬東就食”→《集解》:徐廣曰一無此重字(서광은 타본을 인용하여 重자가 없다고 하였다).

③<秦始皇本紀>:“若欲有學法令, 以吏爲師.”→《集解》:徐廣曰一無法令二字(서광은 타본을 인용하여 法과 令 두 글자가 없다고 하였다).

④<孝武本紀>:“毫人薄誘忌奏祠泰一方”. →《集解》:徐廣曰一云毫人謬忌也(서광은 타본을 인용하여 毫는 사람이며 성이 謬이고 이름이 忌이라고 하였다).

⑤<宋微子世家>:“昭公弟鮑革賢而下士.”→《集解》徐廣曰一無革字(서광은 타본을 인용하여 革자가 없다고 하였다).

⑥<范雎蔡澤列傳>:“名實純粹, 澤流千里, 世世稱之而無絕, 與天地終始.”→《集解》:徐廣曰一本無此字(서광은 타본을 인용하여 이 글자가 없다고 하였다).

위에 열거된 예문 가운데 ①의 경우 서광은 ‘陶’자가 衍文이라고 하였는

데, 《索隱》에서 ‘卷’을 ‘坳’으로 풀이하였고, 《尚書》에서는 大坳은 바로 定陶이라 하였다. 후에 원문 곁에 ‘陶’자를 첨가해서 본문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卷陶’가 된 것이다. 따라서 泰卷은 大坳을 말하며, ‘陶’자는 첨가된 것이다. ②의 경우 《史記》원문에 ‘重馬’라고 한 것은 서광이 자신이 본 판본과 차이가 있어 ‘重’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하였다. 전체 문구의 의미를 살펴봐도 ‘重’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③의 경우 <李斯列傳>의 “若有欲學者, 以吏爲師” 구절을 근거로 살펴보면 서광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의 경우 <封禪書>와 《漢書》 모두 ‘亳人謬忌’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謬忌’은 인명이며, 후에 誘忌로 잘못 표기하였고, ‘薄’자를 추가한 것은 후인들이 ‘亳’자의 주음 과정에서 본문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 《史記》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 ⑤의 경우 錢大昕은 《左傳》에 ‘革’자가 없고 뒤 이어서 ‘公子鮑’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革’이 衍文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는데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正義》

①<趙世家>:“乃令趙勝受地,告馮亭曰敝國使者臣勝,敝國君使勝致命,以萬戶都三封太守”→《正義》:爾時未合言太守,至漢景帝始加太守,此言太,衍字也(이 시기에 태수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한 경제 때 처음으로 태수라고 하였기에 여기서 太라고 한 것은 추가된 글자이다).

②<梁孝王世家>:“李太后亦私與食官長及郎中尹霸等士通亂”→《正義》:張先生舊本有士字,先生疑是衍字,又不敢除,故以硃大點其字中心(장선생 구본에는 ‘士’자가 있는데, 선생은 추가된 글자로 의심하였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붉은 색으로 글자 가운데에 크게 점을 찍었다)

③<屈原賈生列傳>:“襲楚至鄧”→《正義》:至郢 鄧,一本無郢字(至郢,鄧의 경우, 他本에는 郢자가 없다).

④<酈生陸賈列傳>:“閱籍孺”→《正義》:按籍字,後人妄加也(내 생각에 籍자는 후인들이 근거 없이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예문에서 ①의 경우 경제시기 이전에 ‘太守’라고 칭한 적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太’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太史公書》에서 경제 이전에도 종종 太守라고도 하였다.”고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후인들이 제멋대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尹霸와 士通은 인명으로 傳寫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의 경우 유통본과의 차이를 들어서 ‘鄧’자가 연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④의 경우 안사고가 <佞幸傳>에서 고조때 적유, 효제때 굉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이름이 ‘孺’이고 성은 각각 다르다. 따라서 현존 유통본에서 “閱籍孺”이라고 한 것은 ‘籍’자가 잘못해서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脫文에 대한 교감

일반적으로 문헌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사, 초록, 출판 등의 오류로 인하여 원본의 내용을 빠트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脫文’ 또는 ‘奪文’이라고 한다. 脫文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로 인하여 빠트린 경우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빠트린 경우이다.《三家注》에도 탈문 현상에 대한 교감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索隱》

①<秦本紀>:“是時蜚廉爲紂石北方, 還,無所報。”→《索隱》:石下無字, 則不成文, 意亦無所見, 必是《史記》本脫. 皇甫謐尙得其說. 徐雖引之, 而竟不云是脫何字, 專質之甚也(石자 다음에는 無자가 없어 문장이 되지 않고, 의미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필시《사기》본에서 빠진 것이다. 황보밀이 그 주장을 따랐다. 서광은 비록 그것을 인용하였지만 끝내 어떠한 글자가 빠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②<建元以來王子侯者年表>:“元年四月戊寅, 侯劉霸元年”→《索隱》:《漢表》名雲. 城陽頃王子十九人, <漢表>二十人, 有挾僖侯霸, 疑此表脫(<漢表>에서는 雲이라고 하였다. 성양의 경왕은 자식이 19명인데 <한표>에는 20인으로 협희 侯霸가 있다. 바로 이 표에서 빠트린 것으로 의심된다).

③<秦本紀>:“晉滅霍,魏,耿”→《索隱》:《春秋》魯閔西元年《左傳》云晉滅耿, 滅魏, 滅霍, 此不言魏, <史>闕文耳. 又《傳》曰賜革萬魏, 賜趙夙耿. 杜預

注曰平陽皮氏縣東南有耿鄉, 永安縣東北有霍太山. 三國皆姬姓(《춘추》는 민공 원년의 《좌전》에서는 진이 경을 멸하고, 위를 멸하고 곽을 멸했다고 했는데, 내가 본 《사기》에서는 위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행본 《사기》에서 빠트린 것이다. 또한 《전》에서는 필만에게 위지역을 하사하고, 조숙에게 경을 하사 하였다고 하였다. 두예주에서는 평양의 피씨현 동남쪽 지역에 경향이 있고, 영안현 동북쪽에 곽태산이 있으며 세 나라 모두 희씨 성이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①의 경우 《색은》의 주장에 따르면 원본 《사기》에서 빠진 것이 분명하며, 황보밀이 그 주장을 따랐다. 서광이 비록 그러한 주장을 인용하였지만 어떠한 글자가 빠졌는지는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있어 단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서광이 본 《사기》판본은 당시 통행본과는 다른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漢書》에 근거하여 교감을 하였는데 즉 《史記》에서는 19명으로 기록한 것에 반해서 《한서》는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의 劉霸는 <漢表>에서 이름이 ‘雲’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도로 ‘挾僖侯霸’라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사마정이 탈문 현상으로 의심하였다. ③의 경우 《좌전》을 이용하여 교감하였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좌전》과 다른 것에 근거하여 《사기》에 탈문이 있다고 여겼다. 현존 《사기》중화서국본도 이것에 근거하여 고친 것이다.

《集解》

①<留侯世家>:“樊噲諫沛公出舍,沛公不聽。”→《集解》:徐廣曰一本噲諫曰沛公欲有天下邪?將欲爲富豪翁邪?沛公曰吾欲有天下.噲曰今臣從入秦宮,所觀宮室帷帳珠玉重寶鐘鼓之飾,奇物不可勝極,入其後宮,美人婦女以千數,此皆秦所以亡天下也. 愿沛公急還霸上,無留宮中. 沛公不聽(서광이 말하길, 타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번쾌가 패공에게 간하여 이르길 공은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패공이 말하길 나는 천하를 얻고자 한다. 번쾌가 이르길, 신이 진나라 궁궐에 들어가 본, 궁실에는 휘장과 금은 보화, 장식들, 기이한 물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후궁에 들어가 보니 수천명의 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나라로 하여금 천하를 망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원컨대 패공께서는 서둘러 패로 돌아가시고, 궁궐에 거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패공은 듣지 않았습니다).

②<樊鄴滕灌列傳>:“營衛止噲, 噲直撞入, 立帳下.”→《集解》:徐廣曰一本作立帳下, 瞋目而視, 皆皆血出(서광은 타본에는 ‘立帳下, 瞋目而視, 皆皆血出’라고 하였다.)

③<平津侯主父列傳>:“於是上乃拜主父偃, 徐樂, 嚴安爲郎中.”→《集解》:徐廣曰它《史記》本皆不見嚴安, 此旁所纂者, 皆取《漢書》耳. 然《漢書》不宜乃容大異, 或寫《史記》相承闕脫也(서광은 타본《사기》에서는 모두 ‘엄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주석을 취한 것으로, 《한서》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내용도 크게 차이가 난다. 타본들은 《사기》를 인용할 때에 그것에 근거하여 빠트린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면 ①의 경우 서광이 그가 본 다른 판본에 기록된 변개의 말을 근거하여 《사기》원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후인들이 《한서》를 근거로 《사기》를 필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문장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본문에 기록됨이 옳다. 어떤 이유로 현존 통행본에 누락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광의 기록을 통해서 《사기》의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의 경우 서광은 변개의 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項羽本紀>의 기록과 부합한다. 아울러 변개전 기록이 오히려 <항우본기>에 기록된 내용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됨이 옳다고 생각된다. ③의 경우 서광이 본 《사기》의 판본에는 ‘엄안’이란 글자가 있는 판본도 있고 없는 판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서》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판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후에 전사의 과정에서 빠트린 것으로 보인다.

《正義》

①<高祖本紀>:“丙寅, 葬. 己巳, 立太子”→《正義》:丙寅葬, 後四日至己

已, 則立太子爲帝. 有本脫已字者, 妄引漢書云已下者, 非(병인 날에 황제를 안장하고 사일 뒤인 기사일에 태자를 황제로 옹립하였다. 타본에서는 ‘已’자가 빠져 있는데, 멋대로 《한서》를 인용하여 ‘已下’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②<趙世家>:“趙襄子元年,越圍吳.”→《正義》:<年表>及<越世家>,<左傳>越滅吳在簡子三十五年, 已在襄子元年前十五年矣,何得更有越圍吳之事?從此以下至問吳王是三十年事,文脫誤在此耳(<언표>와 <월세>,<좌전>에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한 것이 간자 35년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이미 양자 원년 15년 전의 일이다. 어찌하여 그 뒤에 월나라가 오나라를 포위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곳에서부터 오왕에게 묻는 기록까지는 30년간의 기록임으로 빠트린 오류는 바로 이것에서 비롯되었다).

4. 倒文에 대한 校勘

문헌의 전달 과정에서 글자의 선후 순서가 바뀐 현상을 倒文이라 한다. 三家注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秦始皇本紀>의 “秦並海內, 兼諸侯, 南面稱帝, 以養四海, 天下之士斐然鄉風, 若是者何也?”구절의 경우 《索隱》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의 <과진론>에서는 효공에 대한 기록부터를 상편으로 삼았고, 제후들의 산동지역 30여개의 군을 합병한 기록은 하편으로 삼고 있다. 추탄생은 태사공이 가의<과진론>에 기록된 부분을 삭제한 이유를 그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 문사를 간략하게 함이라고 하였다. 저선생이 이어서 증편함에 따라 혼란이 시작되었고 세속의 범인들이 태사공이 삭제하고 줄인 요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이곳에 함사하여 논하고 있어 결국 기록이 다르게 된 까닭이다. (按賈誼過秦論以孝公已下爲上篇, 秦兼併諸侯山東三十餘郡爲下篇. 鄒誕生云太史公刪賈誼過秦篇著此論, 富其義而省其辭. 褚先生增續既已混戩, 而世俗小智不唯刪省之旨, 合寫本論於此, 故不同也.)” 즉《색은》에서는 《사기》에 인용된 <과진론>과 가의의 통행본 <과진론>을 비교하여 편장과 단락에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서 그 착오의 이유를 설

명하였다. <秦始皇本紀>의 “二世生十二年而立” 구절 《集解》에서는 “서광은 본기에서는 이십일이라고 하였다(徐廣曰本紀云二十一)” 즉 <秦本紀>의 기록과 다른데 ‘十二’라고 한 것은 ‘二十’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留侯世家>의 “此屬畏陛下不能盡對, 恐又見疑平生過失及誅, 故即相聚謀反耳.” 구절의 《集解》에서 “서광은 대부분 판본에서는 생평이라고 쓴다(徐廣曰多作生平.)”라고 하였는데 글자의 순서가 바뀌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생평’과 ‘평생’은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大宛列傳>의 “初, 天子發書易云神馬當從西北來.” 구절의 《集解》에서는 “《한서음의》에서는 ‘發易書以下’(漢書音義曰發易書以下).”라고 하였는데, 《漢書·西域傳》에서도 “古本作發易書”라고 되어 있어 문자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해》에서 서광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Ⅲ. 三家注의 校勘 方法

1. 對校法

대교법은 교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데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대교법은 三家注 가운데 《史記集解》와 《史記索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양한 판본의 비교를 통하여 원문에 대해 교감을 하였다.

① <宋太伯世家>의 “越使死士挑戰.” → 《史記集解》: “徐廣曰死一作亶. 越世家亦然, 或者以爲人名乎(서광은 ‘死’자는 他本에서 ‘亶’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월세가> 역시 동일하다. 혹자는 인명으로 여기기도 한다)”

② <五帝本紀> : “以變北狄.” → 《史記集解》: “徐廣曰變一作變(서광은 ‘變’은 타본에서 ‘變’자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③ <大宛列傳> : “不知鑄錢器.” → 《史記集解》: “徐廣曰多作錢字, 又或作鐵字(서광은 대부분 ‘錢’자를 쓰고 있는데, 타본에서는 鐵자로 쓰고 있기도 하다고 하였다.)”

④ <楚世家>: “右臂傳楚鄴郢, 膺擊韓魏.” → 《史記索隱》: “謂韓魏當秦

之前, 故云膺擊. 俗本作鷹, 非(한, 위라고 한 것은 진 이전을 의미하며, 따라서 ‘膺擊’이라고 하였다. 속본에서는 ‘鷹’자를 쓰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⑤<周本紀>: “毛叔鄭奉明水, 衛康叔封布茲, 召公奭贊采, 師尚父牽牲.”
→《史記索隱》: “明, 明水也. 舊本皆無水字, 今本有水字者多, 亦是也. 若惟云奉明, 其義未見, 不知奉明何物也. 烜音毀(‘명’은, 밝은 물이라는 뜻이다. 舊本에서는 모두 ‘水’자가 없다. 今本에는 ‘水’자가 있는 것이 많은데, 또한 옳다. 만약이 단순히 ‘奉明’이라고만 한다면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 ‘奉明’이 어떤 사물인지 알 수가 없다. 烜자의 소리는 ‘毀’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①, ②, ③은 모두 徐廣의 주석을 인용하여《史記集解》本과 다른 판본의 내용을 비교하여 교감하였다. ④의 경우《索隱》本과 당시 통용되었던 다른《史記》판본을 비교하여 통행본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⑤의 경우, 사마정이 여러 판본을 수집하여 비교한 후에 교감을 통해서 ‘舊本’에는 모두 ‘水’자가 없고, 今本에 ‘水’자가 있는 판본이 많은 것은 舊本의 ‘脫文’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本校法

本校는 본 서적의 앞뒤에 기록된 내용의 비교를 통해서 그 문자의 차이를 찾아내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三家注에서도 앞뒤의 장절에 기록된 문자를 비교하여 오류를 교감하였다. 本校法은 주로《索隱》와《集解》에서 사용하고 있다.

① <燕召公世家>: “愍公三十一年卒, 釐公立.” →《史記索隱》: “年表作釐侯庄. 徐廣云一無庄字. 案燕失年紀及其君名, 表言庄者, 衍字也.(연표에서는 釐侯庄이라고 하였다. 서광은 타본에서는 庄자가 없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 연이 기년과 군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표>에서 말한 ‘庄’이란 것은 덧붙여진 글자이다.”

② <秦本紀>: “二十四年, 與晉戰鴈門, 虜其將魏錯.” →《史記索隱》: “紀年云與魏戰岸門, 此云鴈門, 恐聲誤也. 又下云敗韓岸門, 蓋一地也. 尋秦

與韓魏戰，不當遠至鴈門也.(<기년>에서는 ‘與魏戰岸門’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鴈門’은 ‘岸門’음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또 이어서 ‘敗韓岸門’이라고 하였는데, 대략 한곳이다. 한, 위나라와 전쟁을 하기위해, 멀리 ‘안문’까지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封禪書>: “今陛下爲觀，如緱城。”→《史記集解》: “徐廣曰一云如緱氏城.(서광은 타본에서는 如緱氏城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④<河渠書>: “山行弔橋。”→《史記集解》: “徐廣曰一作權(서광은 타본에서는 權자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⑤<南越列傳> : “故歸義越候爲戈船下歷將軍。”→《史記集解》: “徐廣曰歷一作瀨(서광은 ‘歷’을 타본에서는 ‘瀨’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①의 경우 사마정은 <연소공세가>와 <연표>의 기록을 비교하고, 게다가 서광의 주장을 참조하여 <연표>에 기록된 것이 덧붙여진 글자임을 주장하였다. ②의 경우 모두 《사기》의 내용에 근거하였는데 ‘鴈門’과 ‘敗韓岸門’은 실제 하나의 장소로 글자의 발음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명에 사용된 글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의 경우 <孝武本紀>에 “緱氏城”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교감하였고, ④의 경우 <夏本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으며, ⑤의 경우 <東越列傳>에 “越候爲戈船下瀨將軍”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3. 他校法

본래의 서적 이외에 善本이나 類書, 註釋 및 다른 서적에 인용된 관련 서적의 기록을 이용하여 본래의 서적을 교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교감하는 것을 타교라고 한다. 즉, 다른 서적의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서 본서의 문자 오류를 바로 잡는 방법이다. 三家注 가운데 《正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①<吳王濞列傳>: “如此者四十餘年。”→《史記正義》: “言四十餘年者，太史公盡言吳王一代行事也。漢書作三十餘年，而班固見其語在孝文之代，乃減十年，是班固不曉其理也(40여년 이라고 한 것은 태사공이 오왕의 일대기 행

적을 모두 말한 것이다. 《한서》에서는 30년이라고 하였는데, 반고는 효문왕의 일대기 기록에서 확인하고 10년을 줄였다. 이것은 반고가 태사공의 편찬 이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②<屈原賈生列傳>: “脩路幽拂兮”→《史記正義》: “拂, 風弗反. 言拂作鬱蔽也. 《楚辭》作幽蔽也(‘拂’은 풍과 불의 반절음이다. ‘拂’이라고 한 것은 ‘풀 더미로 뒤덮힌 것을 말한다. 《초사》에서는 ‘幽蔽’라고 하였다.)”

③<宋微子世家>: “時人斯其維皇之極.”→《史記正義》: “《尚書》作時人德(《상서》에서는 ‘時人德’이라고 하였다.)”

④<衛康叔世家>: “子康伯代立”→《史記正義》: “古史考云子牟伯立, 而不云康伯也.(《고사고》에서는 ‘子牟伯立’이라고 하였으며 ‘康伯’이라고 하지 않았다)”

위의 예문 ①, ②, ③, ④를 통해서 보면 《正義》에 사용된 교감의 자료들은 《史記》본서가 아닌 《한서》, 《초사》, 《상서》, 《고사고》 등의 문헌들이다.

⑤<朝鮮列傳>: “左將軍使右渠子長降, 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史記集解》: “徐廣曰表云長露. 漢書表云長各(서광은 <표>에서 ‘長露’라고 하였고, <한서표>에서는 ‘長各’로 쓰고 있다.)”

⑥<本越列傳>: “不戰而耘, 利莫大焉.”→《史記集解》: “徐廣曰漢書作殞(서광은 《한서》에서는 ‘殞’자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⑦<大宛列傳>: “初, 天子發書易, 云神馬當從西北來.”→《史記集解》: “漢書音義曰發易書以卜(《한서음의》에서는 역서를 보내어 점을 치게 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 ⑤, ⑥, ⑦을 통해서 보면 《集解》에서는 《漢書》, 《漢書音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史記》를 교감하고 있다.

⑧<殷本紀>: “湯歸至於泰卷陶”→《史記索隱》: “鄒誕生卷作垆, 又作河. 則卷當爲垆, 與《尚書》同, 非衍字也. 其下陶字是衍耳. 何以知然. 解《尚書》

者以大坳今定陶是也, 舊本或旁記其地名, 後人轉寫遂衍斯字也(추단생본에 서는 ‘卷’을 ‘坳’이라 하였고, 또 洞자로 쓰기도 하였다. 따라서 ‘卷’은 ‘坳’자로 쓰는 것이 옳으며, 《상서》의 기록과 같다. 추가된 글자가 아니다. 그 뒤의 ‘陶’자는 추가된 문자이다. 그러한 것을 안 이유는, 《상서》에 주를 단 ‘大坳’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定陶’이기 때문이다, ‘舊本’에서 옆에 그 지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후인들에 의해서 전사 과정에 그 글자가 추가되었다.)”

⑨<魏世家>: “韓亡, 秦有鄭地, 與大梁鄰, 王發爲安乎?”→《史記索隱》: “戰國策鄰作鄰字爲得.(《전국책》에서 ‘鄰’을 鄰자로 쓰고 있는데, 타당하다)”

⑧과 ⑨의 예문에서 보면 사마정이 序에서 《戰國策》, 《左傳》, 《國語》, 《楚漢春秋》 및 제자서 등에 근거하였다고 주석을 하였다고 밝혔듯이 《상서》와 《전국책》에 근거하여 《史記》를 교감하였다.

IV. 결론

三家注의 교감은 주로 문자의 오류나 원문에 추가된 문자, 빠진 문자, 순서가 뒤바뀐 문자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감하였다. 司馬貞은 주로 판본의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비교하여 오류를 바로 잡았고, 裴駰은 서광의 《史記音義》에 수록된 판본에 근거하여 교감을 진행하였다. 서광의 교감성과를 폭 넓게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증거자료를 더하여 오류를 바로 잡았다. 따라서 《史記集解》에는 서광의 교감성과와 함께 본인의 새로운 관점과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張守節은 기존 《史記》연구 결과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판본의 차이를 비교하여 《사기》 원문의 오류를 바로 잡았는데, 특히 ‘本作’, ‘或本作’, ‘舊作’, ‘又作’등의 술어를 이용하였다. 또한 三家注에서는 《史記》의 교감에 있어 다른 판본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사기》의 다른 장절에 기록된 내용을 활용한다든가, 선진 및 양한 시기의 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史記》원문의 문자오류를

바로 잡았다. 이처럼 《三家注》에 남아있는 많은 교감자료들은 《사기》의 교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본에 대한 수집, 다른 《사기》 판본들에 대한 나열, 고본과 고문에 대한 중시, 다양한 판본들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은 향후 《사기》 판본 및 교감 작업의 상호 관련성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司馬遷司, 《史記》, 中華書局, 1959.
陳垣, 《校勘學釋例》, 中華書局, 2004.
孫欽善, 《中國古典文獻學》, 北京大學出版社, 2006.
官錫華, 《漢語古籍校勘學》, 巴蜀書社, 2003.
倪其心, 《校勘學大綱》, 北京大學出版社, 2004.
許慎, 《說文解字》, 上海古籍出版社, 2003.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2.
陳復華, 何九盈, 《古韻通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宗福邦, 陈世铤, 萧海波, 《故訓匯纂》, 商務印書館, 2004.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1992.

❖ ABSTRACT

The Study of Collation in Shi-Ji SanJiaZhu

Seo weon nam

"San-Jia-Zhu" is the integrated study of "Shi-Ji" of the Sui and Tang dynasty. It has preserved the ancient note large, rich notes, annotation methods, which have a greater impact on historical research. In collating, "San-Jia-Zhu" not only for <Shi-ji>'s error correction, and the comprehensive use of various methods of collation in collating process. First, he paid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different versions very much, to determine the word errors us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versions of the diffracted off. This draft is 《Shiji》 from ancient Chinese research methods to explore the characters, phonology, syntax, exegesis, collation of historical value.

Key Words

사기교감, 고대한어, 문헌정리, 중국문화, 삼가주

The collation of Shi-Ji, Ancient Chinese, document arrange, Chinese culture, San-Jia-Zhu

논문접수일: 2015년 0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